

광주시 청렴도 11위로 2 단계 추락

광주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역주행하며 다시 두자릿 수위를 차지했다.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5등급으로 체면을 구긴 반면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국 1위의 영예를 이어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63점을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등급으로는 3등급에 턱걸이했다.

지난해에 비해 등급은 현상유지했으나, 순위는 2단계 내려 앉았다. 2011년에 4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2년 8위, 2013년 10위, 2014년 12위로 3년 연속 하락하다 2015년 11위로 한 계단 상승한 뒤 지난해 다

외부청렴도 하락·내부청렴도 13위로 '발목' 도시철도공사 전국 1위...동구, 5등급 망신살

시 2계단 뛰어 올랐다.

특히, 지난해 '인척 비리' 악재를 딛고 한 자릿수 진입해 성공하면서 올해 기대감이 컸으나 폐쇄 2계단 후진하고 말았다.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9위로 하락하고, 소속 공무원이 내부 업무와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 13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주민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가 14위에서 10위로 오르긴 했으나, 순위 상승을 이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치구 평가에서는 동구가 7.64점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65위, 등급은 최하위 5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개 구는 3등급에 포함됐다. 북구와 남구는 지난해 각각 4, 5등급에서 나란히 상승했다.

공기업도 회비가 엇갈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8.5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전국 30대 지방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시 도시공사는 24위, 4등급에 그쳤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조직 차원은 물론 직원 개개인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일 뿐 아니라 공사와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집

행의 투명성과 혈세낭비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어서 '행정 수능' '행정 종합평가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행정 성과를 계량화하기 힘든 선출직 단체장들의 경우 청렴도 평가 결과가 차기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성적이 좋을 경우 공직(功績), 나쁜 경우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내지 격려의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악재도 이렇다할 비리도 없었고 3개 평가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점수가 향상됐으나 유독 종합평가에서만 순위가 떨어져 아쉽다"며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공연 티켓 싸게 판다' 인터넷 사기 20대 영장

유명가수의 공연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곡성경찰서는 6일 공연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6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가수의 공연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박모(36)씨 등 104명으로부터 68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씨는 지난 8월께 같은 혐의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한 달여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예매의 경우 배송까지 1~3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이 인터넷 구매한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가수의 공연만 골라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인 지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개인별로 20만원~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임을 결성한 뒤 범행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서울의 한 PC방에 있던 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씨가 도주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가로챈 돈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 2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박모(2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전남·전북·서울·경기·강원 등지를 돌며 금융사기조직원에게 속은 이들에게 6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 어플로 조직 관계자와 연락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돈의 1%가량을 수수료(5000만원 상당)로 챙겨왔으며, 범행에 실패할 경우 교통비와 일당(15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금융사기조직은 제2금융권 회사 과장을 사칭한 뒤 '신용 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기자

고용센터에 불 지르려고 한 50대 검거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사무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중 최근 지급이 끊기자 고용센터를 찾았고 여직원과 이야기하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자 자신의 차함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시 들어가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하 추위에 일주일된 영아 사찰 범당유기

영하의 날씨에 태어난 지 일주일가량 된 여자아이가 유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

경 충청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찰 법당에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이 사찰 보살 A(77·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당을 청소하려고 가보니 갓난아이가 방석으로 덮여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영하의 추위에 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5시 기준 청주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바람직한 어른되길 6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강당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마친 3학년 수험생들이 성년례를 하고 있다.

교육청 청렴도 광주 전국 꼴찌·전남 10위 유지

전남 내부청렴도 17위로 조직문화 불만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24점으로 지난해 16위에서 올해는 17위로 떨어졌다.

청렴도 등급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점수는 0.01점 상승했다.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외부 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 전국 17위

로 지난해 16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점수는 7.08점으로 0.23점 떨어졌다.

소속 공무원이 내부 업무와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78점으로 3등급, 12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다.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주민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 15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점수는 6.94점이며 3등급이다.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민원인 등 외부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공사관리·감독, 운송부 운영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 7.63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8.10점) 5위로 상위권이지만, 내부청렴도는 5등급(7.17점)으로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6.78점) 14위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예산집행, 부당지시 등의 불만이 표출되고 부패사건 감점 요인이 적용돼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광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0.6%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의 0.6%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3만579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40명(0.6%)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국 평균 피해 응답률은 0.8%다.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학교급별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 472명(1.1%), 중학교 181명(0.4%), 고등학교 92명(0.3%), 기타 1명(0.1%)으로 나타났다.

피해 응답자 740명 중 가해자 유형의 414명(55.5%)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으며, 학교폭력 장소는 학교 내가 575건(77.1%)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생활 관련 신속 지원형 부러미제도 등 범죄예방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이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길 5

광산구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